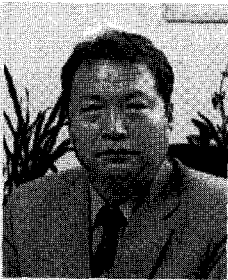


## 기술개발로 세계시장 확대 고객만족 실현에 최우선



신 현 철  
(주)신광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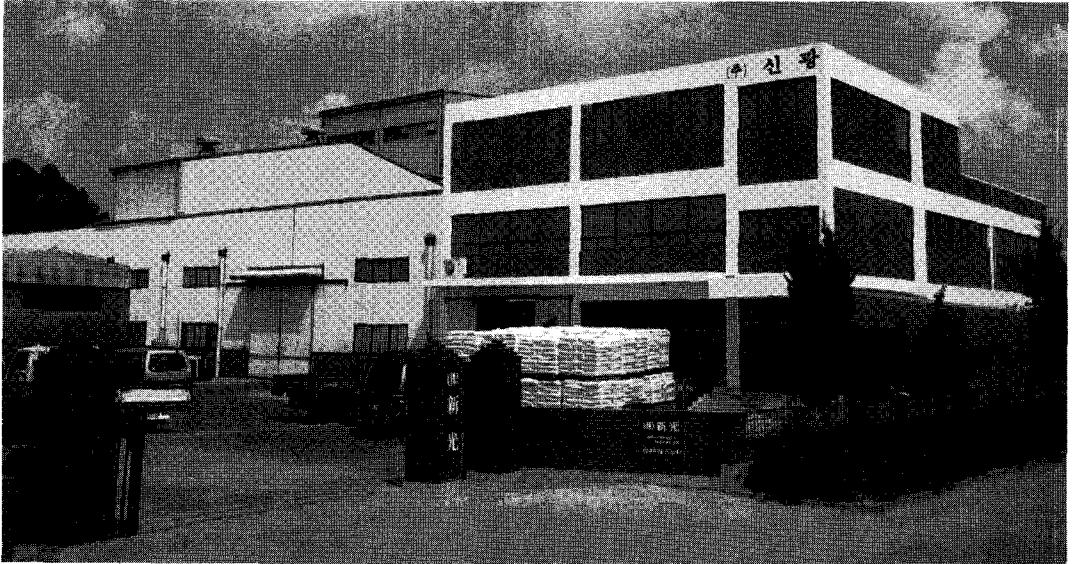
지난 3월 (주)신광은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로 가입함으로써 포장업계에 일익 담당코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신광은 지난 1992년 설립돼 연포장 업계의 합지용 필름에 필요한 양질화된 필름과 산업용(알루미늄복합판넬, 섬유, 자동차내장부품제)에 필요한 Hot melt접착수지 및 필름을 생산하며 포장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주)신광은 LDPE, MDPE, LLDPE FILM, Easy peel Film, 내약품성, 내유성에 강한 Film, Easytear Film, Anti fogging Film, 산업용품(ACP 복합판넬, 섬유, 자동차내장부품제)의 Resin 및 Film과 특허를 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Refill Film을 생산하며 그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신광의 신 사장은 "회사 설립 당시 Polybond(SF100)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기계적, 자금, 기술적 문제 등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립 초기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그러나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한걸음 한 걸음 계획성 있게 연구, 개발해 Polybond를 세계적인 제품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사장은 그 간 신광을 이끌어 오면서 지난 1996년 국내 처음으로 내충격성, 내한성이 우수한 Refill pack 필름을 개발, 생산함에 있어서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주)신광 회사 전경

신광은 압출기 5대와 컴파운딩기 2대로 월간 1,100톤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70억원의 매출을 기록, 올해는 이보다 15% 증가한 내수70%, 수출30%인 약 85억원을 목표로 생산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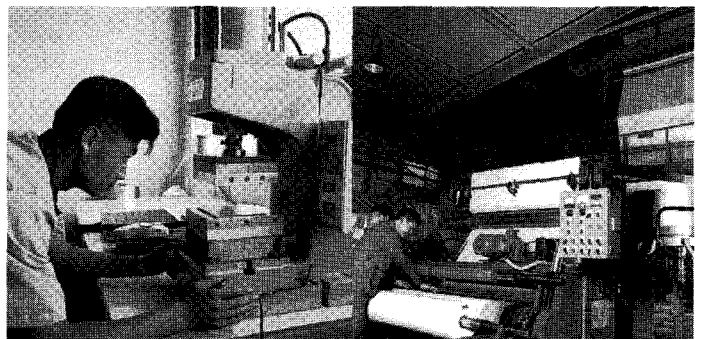
신광이 이렇듯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며 여기에 일반 중소기업 특히 포장 업계에서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좀처럼 실천하기 힘든 열린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신 사장의 경영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신광은 연 매출액의 3~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신 사장은 “기업이 성장하려면 많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

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좀더 시야를 넓혀 앞으로의 비전을 갖고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 신광이 여느 동업



▲ 신광 실험실(좌)과 압연 가공기(우)

## Shin Kwang



▲ 신광이 생산한 PE필름을 이용해 만든 제품

체와의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낌없는 사원 복지 정책 일 것이다.

어떠한 기업이던지 기업의 흥망성쇠는 임직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하는 신 사장은 “임직원이 회사를 단지 생계 수단만이 아닌 내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곳으로 또한 제2의 가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라

고 말했다.

때문에 신 사장은 직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신광은 직원의 자녀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품 무사고 생산 목표 달성 후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금연자에 한 해 성과금을 지급을 통해 전 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연구 교육을 실시해 각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 사장의 열린 경영 중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객만족이다.

(주)신광은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이에 엄격한 관리를 통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제품 물성을 점검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때문에 신광은 ISO 9001 획득을 통해 엄격한 생산 품질 관리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제품은 그 회사에 대한 평가이며 이는 고객이 갖는 신뢰도와 비례합니다”라는 신 사장은 “때문에 무엇보다도 최상의 제품 공급을 통한 고객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피력했다.

현재 (주)신광은 국내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토대로 해

외사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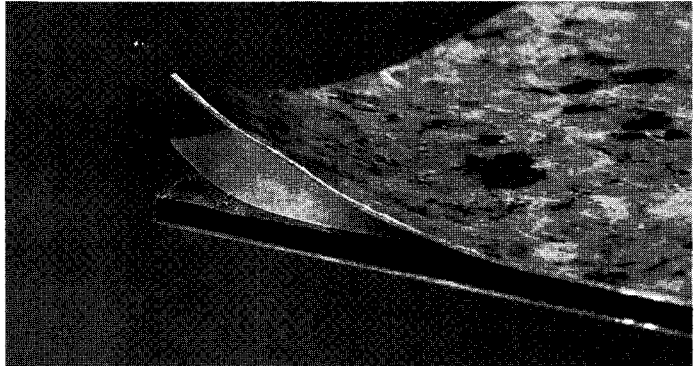
신광은 유럽, 동남아, 중국 등으로 알루미늄 복합판넬의 접착수지 및 필름 등을 수출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 현지에 공장을 신축 건립 중이다.

“한정돼 있는 국내 시장보다는 이제는 좀더 시야를 넓혀 넓고 무한한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라는 신 사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웃 일본처럼 큰 변동이 없을 경우 탄력적으로 유화업체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가장 시급 합니다”라고 피력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다. 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동 업계간의 기술교류와 상호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광도 (사)한국 포장협회의 회원으로 가입, 동



▲ 신광이 개발하고 접착수지 필름

업계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현 국내 포장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 것이다.

신 사장은 “원료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연포장업체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매년 겪는 원료가격 파동은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며 “특히 원료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으로 원료의 상승된 가격만큼 상품가격은 인상하지 못하고 원료가격에는 유가변동에 의해 그때그때 상승된 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 포장업체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신 사장은 “이번

포장협회 회원 가입을 통해 포장재를 생산하는 한 기업으로써 국내 포장산업 발전에 동참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포장산업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포장재를 생산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에서도 국내 포장 산업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소수이다.

(주)신광은 좀더 멀리, 좀더 넓게 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으로써 국내 포장산업 발전에 주춧돌이 되길 기대하며 종합포장재 생산업체로 발돋움 하길 기대한다. ☐

권해진 기자